

‘여성해방론’의 낭만적 지평

— 김일엽론 —

이 태숙*

1. 머리말
- 2.1. ‘여성해방론’의 근대적 성격
- 2.2 여성육체의 한계와 낭만적 사랑
- 2.3 여성성의 불교적 양상
3. 맺음말

초록

근대 초기의 대표적 여성문학가로서 김일엽은 한국 근대문학의 근대성과 여성성의 문제를 성육의 측면에서 제기했다. 초기 그의 ‘여성해방론’은 계몽주의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남성중심사회가 가져온 현 사회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여성적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문제 해결의 방법을 사회적 측면에서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해방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곧 성해방으로서의 여성해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정조’로 각인되는 여성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의 ‘신정조론’은 육체성으로서의 여성성육을 심리적 기제로 환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남성타자에게 여성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낭만적 사랑’의 추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여성성육의 문제와 근대적 여성주체의 문제가 결부되는 양상을 왜곡하게 된다. 이후 그는 이러한 모순을 불교의 교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하나, 이러한 노력도 개인적 구도로 그칠 뿐 실천을 통해 완성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초기의 그의 여성해방론이 보여주었던 실천적 모습이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되고 미는 결과로 나타난다.

* 부경대 강사

1. 머리말

근대초기 여성문학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곧 한국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던 논리가 남성문학의 논리였고, 이러한 논리적 기반 하에서 여성문학은 반근대적이거나 혹은 비문학적 글들로 폄하되어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이러한 전제를 먼저 문제삼지 않고 여성문학을 논의하는 작업은 한국문학사의 총체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없다. 물론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근대성의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근대성이 ‘계몽적 합리성’으로서의 근대성으로 전제된다면, 여성문학은 언제나 ‘반근대적’ 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성 자체를 여성문학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논리가 근대성을 서구화, 산업화로서가 아닌 하나의 인식의 틀로서 보고자하는 견해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경우가 이런 입장에서 근대성을 보고있는 경우인데, 고진에게 문학사라는 것은 진보나 발전, 심화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대립>과 <모순>을 통해 구성되는 문제가 무엇인 것이다. 고진에게 있어 근대성의 문제는 다양한 차이들의 의미이며,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힘의 균형이다. 그것은 문학을 하나의 제도로서 인식하는 독특한 의미망이며 여기에서 일본근대문학이 가지는 주체의 문제가 중심에 놓이는 것이다.¹⁾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근대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측면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총체성을 지향하는 관점에 의해 은폐되어왔던 근대성의 새로운 국면은 차이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방법에 의해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대문학이 계몽적 합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계몽적 이성의 타자²⁾로서 규정되어 왔던 여성

1) 柄谷行人, 박유하 역, 『日本近代文學の基源』(민음사, 1997), pp.192~193.

고진은 일본근대문학이 서양의 근대성에 대해 일본적 자아, 주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보고있다.

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³⁾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여성문학을 대표한 세 사람의 여성,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은 그들의 선각자적 삶과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근대 여성문학사의 앞머리에 놓인다. 이들은 근대적 여성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考究를 문학과 삶을 통해 보여준 인물들이다. 이들의 문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근대적 여성주체가 계몽적 합리성으로서의 근대성에 기반할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오히려 근대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질문을 통해, 한국문학의 근대성의 본질에 대하여 여성주체의 문제를 정립해 나아갔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여성성은 반근대성을 벗어나게 되고, 근대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예리한 모순을 여성주체가 드러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김일엽은 ‘여성해방론’의 관점에서 여성주체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성욕(sexuality)의 근대적 의미를 묻고, 근대적 인간관계의 중심에 놓이는 ‘낭만적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나아가 자신의 여성론이 다다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에 입문함으로써 불교가 내포한 여성론적 의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에서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김일엽을 비롯한 근대문학의 여성작가들은 남성문학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고, 간혹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문학성이 없는 문학’⁴⁾ 정도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무엇보다도 한국문학사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2) 타자의식은 헤겔이 『精神現象學』에서 자아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실존주의 철학에서 주체와 대립되는 부정성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타자성은 실존주의 철학의 타자의 개념과 같은 맥락을 가지지만 여성성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보부아르가 *The second Sex*(1949)에서 발전시킨 개념으로 사용한다. 보부아르의 타자성은 가부장제가 여성성에 부여한 부정성의 개념으로 남성성에 대립되는 여성성의 일반적 특질을 의미한다.

3) 여성성과 근대성의 의미에 대하여는 拙稿,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참조.

4) 김윤식, 「人形意識의 파멸」, 『韓國文學史論考』(법문사, 1973).

문학적 인식론의 정립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김일엽의 문학이 가지는 문학성의 측면과 근대초기 여성주체의 성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의 시와 소설, 평론을 검토하고자 한다.⁵⁾ 세 가지 장르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근대초기 문학과 여성문학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즉 뚜렷한 장르의식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과 문학을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계몽주의의 성격, 그리고 자전적 서사나 일인칭 서사 같은 ‘고백’의 형식이나 정체성을 강조하는 글쓰기를 선호하는 여성문학의 독특한 특징⁶⁾들이 그 이유이다. 다른 작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김일엽의 문학적 여정은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다단한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서구문학의 이식을 통해 형성되었던 한국근대문학의 성격자체에 말미암

5) 김일엽문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초기에 작가의 개인적 이력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추가 되던 양상에서 벗어나, 문학전체에 대한 분석과 규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중적 관심을 보여주는 글들로는,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한길사, 1991).

방인근, 「김일엽과 나의 추억」, 『월간문학』 6월호(월간문학사, 1971).

임중빈, 「김일엽, 그세계」,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습기에』(인물연구소, 1975) 등이 있다.

문학전체에 대한 관심과 규명을 보여주는 연구들로는,

김영덕, 「한국근대의 여성과 문학」, 『한국여성사』 2(이대출판부, 1972)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

박효순, 「김일엽의 문학실적론」, 『지현영선생 회갑기념논문집』(1971)

서정자·박영혜, 「근대여성의 문학활동」, 『한국근대여성연구』(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성낙희, 「김일엽문학론」, 『아세아여성연구』(숙대출판부, 1978)

이상진, 「신여자의 자각과 욕망」,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정영자, 「김일엽문학연구」, 『수련어문논집』 14(부산여대, 1987)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생각의 나무, 2000) 등이 있다.

연구업적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초기 여성문학의 문제는 한국근대문학의 성격규명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문학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본고의 논점이 놓인다.

6) Pam Morris, 강희원 역, Literature and Feminism(문예출판사, 1997), pp.234~235.

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문학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급진성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그의 문학의 변화과정을 세시기로 나눈다.⁷⁾ 첫 번째 시기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해나가던 『新女子』를 중심으로 한 1920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여성육체의 이중성의 문제를 낭만적 사랑의 개념으로 극복하려 노력하던 1927년까지, 마지막으로 불교적 기반 하에서 여성론이 전개되던 1937년경까지의 시기이다. 각각의 시기는 김일엽 문학의 낭만적 주체라는 중심요소가 사회적 상황과 조우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1. ‘여성해방론’의 근대적 성격

근대 초기부터 여성의 활동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교육을 받은 지식여성계급과 그들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역사적 변화가 놓여있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으로 인해 여성들의 정치적 각성이 두드러지고, 여성도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음이 인지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주로 기독교 계통의 부인회 계열과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여성운동의 흐름은 1920년경이 되면서 뚜렷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對사회적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김일엽이 주재했던 잡지 『新女子』도 이러한 여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 잡지의 창간사에서는 당시 여성주체로서의 여성성의 정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드러난다.

改造!

이것은 5년간 참혹한 포탄 중에서 신음하던 인류의 부르짖음이요,

7) 본고에서는 1960년 이후의 김일엽의 화려한 재등장을 다루지는 않는다. 물론 그의 문학전체의 의미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근대성과 여성성의 문제로 주제를 한정하고자 하는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작품은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解放!

이것은 累千年 暗暗한 房중에 갇혀 있던 우리 여자의 부르짖음입니다.

肥己의 野心과 利己의 主義로, 陽春의 평화를 깨뜨리고 죽음의 산, 피의 바다를 이루는 전쟁이 하늘의 뜻을 어기는 非人道라 하면 다 같은 인생으로 움직이고 일할 우리를 無理로 노예시하고, 임의로 弱子라 하여 오직 廚房에 감금함도 이역 하늘의 뜻을 어기는 비인도인 것입니다.⁸⁾

(강조: 인용자)

여성주체의 의미규정을 ‘개조’와 ‘해방’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이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여성의미의 본질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조’라 함은 ‘새로운 시대’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 즉 모든 ‘非’와 ‘惡’의 벗어남이다. 이전 시대를 ‘非’와 ‘惡’이라는 남성중심사회가 가져온 필연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기에서 벗어난 ‘解放’에의 지향성으로 설정하고 있음은 이들의 인식지반이 초기 계몽주의적 합리성의 토대 위에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식론의 근거를 계몽적 이분법 위에 설정하고 그러한 설정에 부정과 긍정의 가치평가를 하는 방식은 悟性의 판단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계몽적 이성의 전형적 양상과 일치한다. 여성의 해방을 하늘의 뜻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도 계몽주의적 天賦人權論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전형적 모습이다. 도전과 정복의 남성사회가 ‘非’와 ‘惡’이라는 인간상실의 시대를 벗어난 새로운 시대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지적하고, 이후에 도래할 시대를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여성적 비전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 안에서 『新女子』는 여성해방의 우선 과제가 사회적 개조에 있음을 역설한다. ‘사회의 개조는 가정의 개조로’ 그리고 ‘가정의 개조는 여성의 개조’로 연결되는 논리적 전개에 따라 여성문제 해결의 시작을 사회적 측면의 개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의 개혁은 여성의 인권이나 정치적 지반,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등 자

8) 金一葉, 「婦女雜誌 新女子 創刊辭」, 『新女子』(1920.3).

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전반적 지향점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의 논리기반이 아직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창간호 당시의 여성운동의 의의는 '사회적 계몽'의 차원에 한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적 한계는 호수를 더하여가면서 진전을 보이게 된다. 『新女子』에는 평론과 함께 시, 소설 등의 문예작품도 함께 수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개혁의 수단으로서 문예작품이 창작되어왔던 시대적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창작이라는 본연의 성격은 계몽주의시대에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사상이라는 철학적 재료를 문학적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문학의 정서적 효능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아닐 수 없다.

김일엽은 이 잡지에 시도 싣고, 소설도 실었지만, 세 가지 장르 모두가 여성해방이라는 관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라는 근대시사의 전개과정에서 김일엽의 시는 여성시의 한 전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쌀쌀히 쏟아지는 찬 눈 속에서/ 그래도 꽃(?)이라고 피었습니다// 높고도 깊은 산의 골짜기에서/ 드문히(?) 떨어지는 조그만 샘물// 그래도 깊이 없는 대양의 물이/ 그 샘의 뒤끝인 줄 알으십니까// 공연히 어둠 속에서 우는 닭소리/ 그래도 아십시오, 새벽 오는 줄⁹⁾

이 작품에서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학이 흔히 드러내는 관념성의 노출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구어체의 사용, 연의 구분, 자연물에 대한 정서의 전이, 음수물에 대한 고려 등 근대시로서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에 그의 시집이 발간된 적도 없고, 그의 문학활동 자체가 짧은 시기동안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삶의辛酸함으

9) 김일엽, 「새벽의 소리-雜誌『新女子』序詩 一」, 『新女子』(1920.3).

로인해,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남성문학논리의 편파성에 의해 그의 시작품들은 본격적인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잡지 『新女子』의 序詩로 발표되었던 이 작품은 여성해방운동이 당면한 조선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詩想의 전개방식이나 정형시적 음수율 등 고전시가의 詩作方式이 근대시가의 詩作方式으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물에 情緒를 移入하는 것은 고전시가의 전형적 시작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눈 속에 핀 꽃’, ‘깊은 골짜기의 드문(?) 샘물’ 등으로 여성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의 입지가 몹시 험겨운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노력이 ‘대양의 물’이 되고,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닭소리’처럼 역사의 필연임을 확신하는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1연과 2연, 3연과 4연이 대구를 이루고, 다시 1, 2연과 3, 4연이 대구를 이루는 방법을 통하여 시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형식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듬어진 시구 등 詩作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은 섬세한 여성문학의 특징을 나타낸다. 흔히 목적의식성을 지향하는 남성문학이 도발하기 쉬운 시적 정서의 상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감상성의 노출은 문학의 급기로 이야기되지만, 그것은 또한 낭만주의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며, 김일엽의 경우 그것은 시에 국한되지 않는 소설과 평론의 기저를 형성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여성해방의 필연성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규정하고, 이것을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로 비유함으로써 이 잡지의 序詩로서의 사명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해방운동’을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두고 있는 관점은 일견 가부장제하의 여성차별의 양상을 도외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김일엽은 『新女子』의 일련의 논설들을 통하여 여성억압의 현실이 봉건유습의 문제와 가정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놓여있음을 분명히 지적함으로써 여성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래의 여성교육이 여성에게 부여한 수단으로서의 여성성의 문제는 여성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봄으로써 여성문제를 단순히 사

회적·정치적 구조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新女子』의 ‘여성해방론’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여성의 이해자로서의 남성이라는 관점을 들 수 있다. 흔히 주장되는 여성의 착취자로서, 타도의 대상으로서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해자’로서의 남성이라는 관점은 김일엽의 여성론이 드러내는 특징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은 자연의 조화의 한 부분이고, 이제까지 여성이 차별 받아 왔던 상황도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여성의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자연의 순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함¹⁰⁾으로써 서구의 여성운동과는 다른 우리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여성문제의 해결이 경제적, 심리적 양면에 있으며, 결국은 조선사회와 문화의 진보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여성문제가 하나의 수단이 아닌 비전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복과 도전으로 상징되는 남성사회의 모순이 도달한 현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여성문제의 해결이고, 결국은 여성적 비전의 획득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의 논의의 시작이 대단히 선구적 입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문제가 봉건제로부터의 탈피와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인식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을 드러낸 작품이 「어느少女의死」(『新女子』, 1920.4)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편지글 형식으로 자살하려는 소녀가 가진 사연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첫 장면은 그 소녀가 자살할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술 취한 손님이 데리고 있던 개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은 근대적 인식론을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작가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압축하는데, 버스라는 근대적 공공교통기관이 작품의 서두에 제시됨은 자살하려는 소녀라는 여성문제의 해결이 근대적 인식론에 바탕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당한 문학적 소산이 아닐 수 없다. 버스는 전근대적 인식이 잔존해 있는 조선사회에서 근대

10) 김일엽, 「雜誌 新女子 머리에 씌」, 『新女子』(1920.4).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 수단이기 때문이다.¹¹⁾ 명숙이라는 주인공은 여학생으로 자각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본시 甲成이란 청년과 부모끼리의 혼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이자 소유물로 보는 시대적 정신의 희생물로서, 자신을 첩으로 데려가려는 방탕한 줄부와 딸을 팔아 재산의 이로움을 얻으려는 무지한 부모로 인해 희생되는 인물이다. 두 언니는 새로운 시대의 자각을 얻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부당한 남성사회의 희생물이 되었지만, 자신은 이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력한 자신이 행할 방도는 자살밖에 없게 된다. 그가 자살하려 하면서 지니고 있던 소지품은 두 장의 유서인데, 한 장은 부모에게, 다른 한 장은 신문에 보내는 것이다. 부모에게 편지한 것은 구세대로서 봉건적 관념의 상징인 부모가 자각하기를 바라서이고, 신문에 유서를 보낸 것은 자신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公憤을 일으켜 사회적 해결을 유도하기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의 원인이 사회적 모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6년 후에 발표된 『自覺』(『東亞日報』, 1926.1.31~2.8)은 봉건유습과 교육을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의 논지를 확장시키고, 나아가 모성이 필연이 아닌 선택이라는 관점, 그리고 구시대의 결혼제도가 근대적 성격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성해방운동’이 근대적, 합리적 인식론의 소산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서는 계몽적 합리성의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라는 전통문화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은 이시기 김일엽의 여성론이 보여주는 특징적 국면이다. 또 여성해방운동을 민

11) 철도나 버스와 같은 근대적 교통기관이 가지는 의미는 좀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광수의 『무정』에서 기차가 국면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가진다. 문명의 이기에 대한 당대의 관점은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근대성에 대한 상징적 관념 자체를 의미했다고 여겨진다.

죽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결국은 여성주체의 문제가 근대적 국가의식의 소산과 같은 백락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근대적 합리적 계몽주체로서의 여성론은 여성육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2.2. 여성육체의 한계와 낭만적 사랑

남성과 여성이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고 보는 초기의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했던 난관은 여성의 육체에서 기인한 한계였다. 즉 순결한 여성만이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가부장제의 모순된 인식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김일엽은 이에 대해 그의 독특한 '정조론'을 소설과 평론을 통해 전개해 나아가고, 이러한 논리는 곧 격렬한 논쟁에 부딪히게 된다. 남녀간의 관계를 평등의 관계로 설정할 때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은 '사랑'이다.¹²⁾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낭만적 사랑이 우선시됨은 당시의 신여성의 애정관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있어서 낭만적 사랑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그것은 전근대적 신분제에 기초한 결혼의 조건을 근대적 성격의 결혼의 조건으로 대치하는 것이다.¹³⁾ 하지만 급진적 페미니즘에서는 낭만적 사랑은 여성의 정신을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꿈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음모라고 주장한다.¹⁴⁾ 여기에서의 낭만적 사랑은 마치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여성의 삶의 의미를 남성에게 종속되게 하는, 여성에게는 마약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기든스에

12) 이광수의 「자유연애론」도 결국은 근대적 결혼제도의 확립과 낭만적 사랑의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김일엽의 「정조론」은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문제를 '여성육체'의 관점에서 해결하려 한 시도였다.

13) Anthony Goddens,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y*, 황정미 외역(새물결, 1995).

14) S. Firestone, *The Dialectic of Sex ;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New York ; Bentam, 1971), pp.131 ~159.

의하면 낭만적 사랑은 근대성의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는 낭만적 사랑을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몇 개의 개념들과의 연관하에서 설명한다. 즉 모성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경도, 친밀감 등 사적이고 여성적인 영역의 증가와 그것은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사랑을 전제하는 열정적 사랑과 구분되는 것으로 낭만적 사랑 자체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즉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는 성격을 띠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는 단지 그가 딴 사람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꿔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여기에서 결여는 예전부터 인식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깨닫지도 못하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여가 직접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낭만적 사랑은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일엽에게 남성이란 타도 해야 할 가부장제의 압제자가 아닌 이해자이자 조력자였던 것이다. 낭만적 사랑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 중 두 편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작과 후작의 거리가 6년에 이르고 있음은 그의 이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나는 가오—戀愛哀話」(『新女子』, 1920.4)는 사랑의 근대적 의미를 보여준다.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된 액자소설 형식이면서, 편지글 형식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집안의 몰락으로 자살의 위기에 몰린 장경자라는 여주인공을 우연히 구하게 된 이상현과 장경자의 사랑이야기이다. 이상현은 빛으로 옥에 갇힌 장경자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빛을 지게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기약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된다. 이상현이 장경자에게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두 젊은이의 사랑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위안을 삼고 있음은 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K와 L이라는 청춘남녀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사랑을 하게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여자가 白痴가 되고 만다. 여자의 부모가 이혼을 권유하지만 남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들어 이혼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변의 사랑이야기들은 우리 전통 안에서든 혼한 것이다. 『춘향전』의 사랑이야기야 말로 오히려 신분과 이해관계를 넘어선 낭만적 사랑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전후관계가 없는 서양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여성론에 있어 ‘사랑’의 문제가 ‘서구적 근대의 理想’임을 반증하는 것이다.¹⁵⁾ 불우한 처지의 여성에 대한 사랑으로 지게 된 빛 때문에 유랑의 길을 떠난 이상현을 장경자가 서른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글은 맺어진다. 이것은 김일엽의 여성해방론이 현실적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의 의미로 삶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낭만주의적 관점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여성론은 결국 그가 불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문제에 닿아 있기도 하다. 이보다 6년 후에 발표된 「사랑」(『朝鮮文壇』, 1926.4)은 김일엽의 낭만적 여성론이 귀결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아내의 부정에 대해 의심하는 남편의 이야기이다. 친구인 A에 대한 아내의 관심이 혹시 아내가 그와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를 남편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C라는 남자가 주인공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와의 관계는 지나간 일이고, 그와 깊은 관계가 아니었음을 항변한다.

15) 『춘향전』을 해석하는 시각은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현대에서 춘향전을 해석하는 주된 입장은 신분과 계급을 넘어선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분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류의 불변의 사랑의 틀을 답습한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1920년대의 『춘향전』에 대한 관점은 불변의 사랑이라는 측면보다는 <丈夫從事>를 죽음으로 거부하는 ‘여인의 절개’라는 측면에 놓여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춘향전』의 춘향은 강인한 주체 의식을 가진 새로운 시대의 여성이 아니다. 오히려 봉건제의 가부장적 윤리를 체현하기 위해 희생한 비주체적 여성형이 되는 것이다. 김일엽이 불멸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구태여 외국의 사랑이야기를 끌어들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해프닝에서 작가가 지나치게 발전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¹⁶⁾ 그것은 결혼 전의 연애는 패념치 않고 그것으로 부인을 의심하는 남편의 용렬함을 스스로 반성한다는 것이다. 김일엽의 ‘新貞操論’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이 작품은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가 결국은 육체로 귀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육체의 문제를 단순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굳은 사랑의 부족으로 해소하고 있음은 김일엽의 낭만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가 사랑을 절망적인 억압을 처리하는 심리적인 수단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아트킨슨은 사랑이란 여성이 어떤 남성의 파워를 자신에게 흡수하는데 사용하는 심리학적인 메카니즘이라 분석한다. 불충분한 자아를 더욱 강력하고 실속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과 통합함으로써 총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¹⁷⁾ 김일엽의 결혼과 이혼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경제적, 정신적 지주로서의 남성에 대한 열망으로 점철되었던 자전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남성형에 대한 이러한 설정과 남녀사이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의 사실들이 설명될 수도 있다. 결국 초기 애정관에서 남녀간의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를 토대로 한 낭만적 사랑이 남성의 전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후기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존성의 노출이라는 파탄을 맞고 있음은 그의 이력과 관련하여 그의 여성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가 되는 남녀간의 사랑이란 필연적으로 육체적 관계의 수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여성론의 희생자가 자신이었던 것은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그가 1922년 동경에서 몰래 김태신을 낳았다는 사실은 사후에 밝혀진 바이지만, 세간에 그를 급진적인 여성론자로 각인시킨 그의 ‘新貞操論’은 이러한 애정관의 연장선상에 놓인

16) 물론 김일엽의 대부분의 작품이 허구와 자전적 성격이 혼유되어 있음이 가장 큰 이유이다. 복잡한 남자관계와 혼인의 이력에서 항상 그를 괴롭혔던 문제에 대해 작품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17) Ti-Grace Atkinson, *Amazon Odyssey*(New York ; Links Books, 1974).

다. ‘新貞操論’의 요체는 ‘여성억압의 근거로서의 여성육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이다. 일단 김일엽은 근대적 여성성의 의미를 여성성욕(sexuality)의 발견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측면을 보인다. 여성의 육체는 가부장제 하에서 인간성을 거세당한 채 유린의 대상으로서 존재해 왔다. 따라서 근대여성에게는 여성의 육체에 가해지는 이러한 억압의 사슬을 끊으려는 노력이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성욕을 죄악시 해왔던 전근대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여성성욕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의 ‘新貞操論’의 특징은 육체성으로서의 여성성욕을 심리적 기제로 환원해 버렸다는 점에 있다. 여성성욕이 논의되는 근거는, 남성성욕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육체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쾌락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단계에 있다. 물론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여성주체의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사실조차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고려한다면 쾌락으로서의 여성성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 한계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정조를 사랑과 함께 유동하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정조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변하면 정조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⁸⁾ 마음에 다른 이성이 남아있다면 또 다른 이성과 접촉하려는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소설에서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은 애인의 아기를 가진 채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있다. 『斷腸』(『文藝時代』, 1927.1)의 여주인공은 남자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다. 여덟 달만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이고 살지만, 애인에 대한 미련을 끊을 수 없어 결국은 아이의 비밀을 밝히고, 애인을 만나러 온다. 그에게 다만 그의 그

18) 김일엽, 「나의 貞操觀」, 『朝鮮日報』(1927.1.8).

림자로라도 살게 해 달라고 간청하지만, 남자는 본부인과 자식의 문제와 체면 때문에 이를 거절한다. 결국 여자는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하고 자신의 나약함이 빚어낸 결과에 남자는 고통을 받게 된다. 「犠牲」(『朝鮮日報』, 1929.1.1~4)의 경우도 혼전관계로 아이를 가지게 된 남녀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몸이기에 결혼할 수 없으니 자살하자는 남자의 논리도 납득할 수 없는 바이지만, 다른 남자를 속이고 결혼해서 애인의 아이를 낳겠다는 여자의 논리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소설적 상황들은 결국 그의 ‘新貞操論’이 현실사회의 논리와 부닥치는 상황으로 설명된다. 즉 현실사회의 부조리가 그의 여성론과 갈등하게 되면서 소설적 정황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⁹⁾ 그가 ‘정조는 도덕이 아닌 사랑을 白熱化시키는 연애의식의 최고의 절정’이라 함은 ‘정조’를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떼어내어 성욕의 차원으로 전이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성욕의 문제가 사랑이라는 심리적 차원에서 또다시 한정되고 있는 것은, 성욕과 여성주체의 문제를 결부시키기에는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그에게 역부족이었음을 의미한다. 여성 성욕에 대한 억압은 사회적·정치적 계기들을 捨象한채 논의될 수 없다. 여성의 육체가 타자성의 대상이 됨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육체의 해방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논지의 중심이 호도되는 것이다. 90년대의 페미니즘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페미니즘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성해방과 관련된 것임은 페미니즘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사실 그 본질의 희석이라는 더욱 위험한 요소가 성해방론에 있음을 방기하는 것이다. 특히 이성애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 훨씬 복잡한 심리

19) 「犠牲」에 관해서는 이 이야기가 김일엽과 백성욱 박사의 실제 이야기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최혜실(위의 책, p.323)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전적 소설도 결국 작가의 논리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역사적으로 소설의 파탄은 결국 작가의 현실적 파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적 차원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성해방문제가 가지는 다면적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일엽의 자유연애론은 20년대의 여성주체의 정립에 있어서 봉건성의 탈피와 새로운 여성성육의 발견이라는 시대적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이성애를 떠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여성론은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모색하게 된다.

2.3. 여성성의 불교적 양상

1923년 9월 忠南 禮山 修德寺에서 滿空禪師의 法門을 듣게 된 김일엽은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한번의 파혼과 결혼, 그리고 이혼, 동거 등의 극심한 혼란이후 다시 동경에서 김태신을 낳고 난 후의 일이다.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리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서울에 와있던 일엽을 『開闢』誌의 기자가 인터뷰한 글이 있다.²⁰⁾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생사와 고락을 초월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여성론이 여성육체의 근본적 모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상기할 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가 불교를 선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緣起論을 주목하게 된다. 불교의 연기론은 事物의 自性, 즉 그 고유한 본체를 부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을 가지는 물질이 본체에 해당하는 불변의 고유한 자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기론은 이렇게 사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적 합리성과 대치된다. 불교는 分別을 망상으로 규정하고 그 分別의 초월을 역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分別에는 반드시 分別의 결과에 대한 집착이 따르고 여기에서 인간의

20) 『開闢誌 會見記—新女性에서 女僧이 되기까지』, 『開闢』(1935.1).

교통이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초기에 그가 여성해방의 근거로 삼았던 논리는 서구적 합리성이었다. 서구적 합리성이란 이성의 판단을 통한 인식이 절대성을 가진다. 이성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적 토대 위에서는 그의 여성론의 중심인 ‘女性的 貞操論’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번 정조를 잃은 여성은 순결한 여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靈’과 ‘肉’을 분리하고, 정조문제를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의 것으로 전환한다. 즉 중요한 것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동안의 정조이지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²¹⁾ 발표와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글의 논리는, 불교의 연기론에서 제기하는 ‘分別에서의 超越’이라는 인식적 바탕에 기대어 여성정조의 의미를 순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집착마저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상기한다면, 그의 ‘新貞操論’은 불교적 기반을 바탕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그의 노력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청춘을 바쳐왔던, 그리고 근대 여성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던 그의 여성운동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쓸쓸히 ‘일시적·순간적 구체급에 불과할 뿐’ ‘영원무궁한 진리가 못된다’고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新貞操論’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여성성욕의 문제가 세간의 비난에 견디지 못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문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에서 불교의 영향은 1923년 이후의 대부분의 작품을 점하고 있고, 소설에서도 애욕의 무상함을 드러내는 성향이 짙게 깔리고 있다. 특히 불교의 설화가 그대로 작품화한 경우도 있는데, 「影池」(『佛敎』, 1928.9)나 「과광새로 化한 두 靑春」(『佛敎』, 1929.1)과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이다. 「影池」는 석가탑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한 것으로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과 그 부질없음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낭만적 사랑에

21) 김일엽, 「나의 貞操觀」, 『朝鮮日報』(1927.1.8).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이성애의 측면에서 여성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회의는 불교철학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의 고통이 가져온 필연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회의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23년 이후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타의 작품들에서도 기저로 작용한다. 특히 불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은 「파랑새로 化한 두 靑春」으로 이 작품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그의 강렬한 열망을 불교의 윤회설에 입각해 해석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처녀는 산 속에서 홀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젊은 스님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에게 시주를 하면서 그의 품격과 아름다운 외모에 끌리게 된다. 뜻하지 않게 밤을 보내게 된 처녀와 스님은 후일을 기약하고,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려는 아버지를 떠나, 처녀와 스님은 동구 밖에서 만나게 된다. 마침내 두 사람은 파랑새로 化하여 날아갔다는 것이 이야기의 내용이다. 세속의 인연에 휩쓸리는 스님의 변뇌와 「男女七世不同席」의 전통윤리에 간혀 있는 처녀가 모든 구속을 헤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합일을 이루어낸다는 이 작품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현실적 시간을 넘어서는 사랑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엽의 소설에 대해 자전적 측면이 강하다거나, 소설적 구성이 미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이것은 그의 문학을 남성문학의 논리나 리얼리즘 소설적 기준을 적용할 때는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이 작품은 인간 육체에 대한 근원적 욕망의 문제와 삶을 초월할 때 얻어지는 영원한 사랑을 윤회에 입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세속의 욕망을 초월해야 하는 스님과 순결한 상징으로서의 처녀의 부정한 관계는 현실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파랑새가 되었다는 것은 세속의 욕망을 초월하는 영원한 시간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욕망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김일엽이 지속적으로 이성간의 낭만적 사랑에 대해 천착해 왔고, 여성해방에 있어서 육체성의 의미를 해명하려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작품을 단순히 세속적 욕망을 벗어난 작품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

적 인식론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純潔한 聖處女’로서의 왜곡된 여성성을 거부하고, 육체성에 기반한 여성의 의미를 천착하려 노력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루터는 기독교의 성처녀에 대한 예배의식이 진정한 세계인 물질적 리얼리티를 초월하기 위한 그릇된 시도라고 보았다.²²⁾ 여성을 백인처녀로 상징되는 이상적 여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여성에게는 부정성을 부여하려는 가부장제의 논리가 이러한 상징적 장치를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기독교적 전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부장제적 전통하에서 여성에게 자행되었던 이중적 인식의 틀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을 때, 기독교적 합리성을 근대성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여성해방의 바탕으로 삼으려했던 그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그가 불교로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쩌면 이러한 논리상의 필연이 빚어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에 발표되었던 『新女子』시기의 시들이 자연물에 자신의 정서를 투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여성해방의 필연성을 주장했던 일종의 목적시였다면, 6년 동안의 침묵 후에 나타난 시들은 개인정서의 갈등과 번민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로 성격 지을 수 있다. 그가 1923년에 滿空禪師의 法門을 듣고 發心한 후에도 3년이나 더 지나서 평정심을 가지고 詩作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적 인식론의 색채가 진하게 배어나지만 그보다는 인간사의 고뇌와 번민 쪽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던 것이 30년대까지의 시적 특징이다. 20년대에 발표되었던 시들에서, 객체로서 주관의 정서를 담아내는 대상으로 표현되었던 자연이 이후의 시들에서는 주체와 조화를 이루는 主客一體의 상태로 현현되는 상황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번민의 근원은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 아니라 자아의 내적 갈등의 양상으로 化하지 않을 수가 없게

22) Rosemary Radford Ruther. ed., *Religion and Sexism: Image of Woman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74).

같은 맥락에서 루터는 매리 델리가 성처녀 마리아(Virgin Mary)를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그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

되는 것이고, 그의 시 세계가 철학적, 존재론적 의미를 표출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살아서 이 몸도/ 죽어서 이 혼까지도/
그만 다 바치고 싶어질까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온갖 좋은 건/ 모두 다 드러
야만 하게 되옵니까?/ 내 것 네 것 가려질 길 없사옵고/ 條件이나 代價가 따
져질 새 어딴졌어요?// 魂까지 합쳐진 한 몸이건만……// 그래도 그래도/ 그지
없이 아쉬웁/ 그저 남아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²³⁾

인간해방으로서의 여성해방을 추구했던 그가 부딪힌 문제는 여성육체에 가해진 가부장제의 이중적 인식이었다.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고 죄악시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靈’과 ‘肉’을 분리하고, 사랑을 정조와 함께 순간순간에만 발현하는 낭만적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논리는 현실적 부조리를 극복할 수 없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대안은 佛法이었다. 불교에서의 靈과 肉은 오직 業의 因果律에 의해 규정만을 뿐 차별되지 않는다.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 속에 또 삶이 존재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불생불멸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조와 같은 여성의 육체에 가해진 차별의 문제도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참사랑, 진리를 향한 유일한 길은 ‘깨달음을 얻는 길’ 뿐인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번뇌는 극복될 수 있다. ‘-삽기에’라는 독특한 어미로써 시 전체의 분위기를 경건하고, 진지하게 만듦으로써, 이러한 깨달음을 향한 修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진리든지 사랑이든지 그 모든 것은 분별하고 가리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투여를 통해서 가능할 뿐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타의 작품들에서도 공통되는 특징이다. ‘靈’과 ‘肉’의 문제라는 話頭를 풀어가기 위해 그가 선

23) 김일엽,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1928.4). 이 시는 壽松洞 旅舍에서 쓴 것으로 밝혀져 있다. 『未來世가 다하도록』과 同名의 수필집에 수록되었다.

택한 것은 佛法에의 정진이었다. 불법을 통해 迷惑을 깨침은 보리심(진리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깨달음만이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자기투여를 통해 가능할 뿐이다. 모든 것을 바치고 ‘魂’마저 바치는 투여를 통해 자아를 확대하려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며, 영과 육을 거쳐 의식을 확대 개명하고 마침내는 眞空이 되어 本有를 이루려는 것이 무한한 구도심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진리에에 대한 정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움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 깨달음의 환희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보리심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한없는 誓願, 그리움, 안타까움이다. 그가 불교에 입문하고 나서 수행 중에 쓰여진 작품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헌신을 통해 승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못 거늘 사랑불이/ 몸과 맘을 다 태우네/ 타고 남은 찬 재 날아/ 티끌마저
 흩어지면/ 님 향한 삼매불(三昧火) 더욱 밝아/ 님의 앞을 비치리//²⁴⁾

참 나를 찾기 위한 보리심(진리에)은 끝없는 정진을 요구한다. 그 정진의 끝에 다다르고 그 끝마저 소멸한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빛이다. 부처님에 대한 공양 중에서도 가장 뜻깊은 것은 燈供養이다. 불교의식의 가장 화려한 부분이면서 불법에 대한 환희를 뜻하기도 한다.²⁵⁾ 등공양은 어두운 암흑을 제거하는 광명, 즉 無明을 퇴치하는 등불로 상징되어 부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지름길로 이야기된다. 인간사의 미혹을 깨치려는 헌신이 등공양을 통한 환희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보리심이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化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진리의 끝은 중생을 구원

24) 김일엽, 「向心」, 『未來世가 다하고 남도록』, 위의 책, p.78.

25) 法華經 藥王菩薩本事品은 등공양의 공적이 무량하고 위대함을 밝히고 등공양을 장려하고 있는 경전이다. 교양교재편찬위원회편,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6), p.145.

하고자하는 실천을 통해서만이 완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의 이러한 한계는 그의 여성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가 합일하는 완전한 세계, 그러나 그러한 완전성이 곧 無로 化하는 번민으로부터의 해탈, 그것이 바로 불교적 상상력의 詩로서 그의 문학이 가지는 특색이며, 곧 그의 여성론이 도달하였던 지향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은 여성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자체를 無化해버렸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현실적 맥락들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모두 벗어버리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인지, 이후에 발표된 그의 평론에서도 시와 소설에서도 해탈의 의미가 빛나는 대신, 여성으로서의 삶이 직면해야 했던 세속의 질곡들이 인간일반의 번뇌로 化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맺음말

서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여성해방을 주창했던 김일엽이 극복하려했던 가부장제하의 차별의 실상은 여성육체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었다. 그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新貞操論’은 낭만적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불법에 귀의함으로써 개인적 안식을 얻는다. 여성성이 지향하는 바가 수단으로서의 여성론이 아닌 여성적 비전 자체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불교철학이 제시하는 초월의 미학이 페미니즘의 비전과 맞닿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서구의 합리적 인식론의 틀 안에서 차별 받고 억압받아온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틀이 내포한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적 기독교의 인식론 안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꼈던 그가 불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실세계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닌

佛法을 통한 초월이라는 또 다른 낭만적 양상으로 드러났음은 그의 여성론이 도달한 지평을 드러낸다. 그것은 비전의 제시일수는 있어도 현실에서의 구원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보리심이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비심으로 化할 수 없었다는 점이 그의 한계이다. 인식은 실천에 의해 확고해진다는 우리의 믿음을 상기한다면 비전의 제시는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됨에 의해서만 의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여성론이 성욕의 문제에 대한 근대적 인식론의 이중적 차별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적 합리성을 거부하는 불교적 철학의 기반을 선택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철학이 개인적 구원에만 그치고 현실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었음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Abstract

The Romantic Vision of the Argument about 'Women's Liberation' on Kim, Il-Yeob

Lee, Tae-Suk

Kim, Il-Yeob is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early-modern literature in Korea. She instituted the problem of modernity and femininity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s a dimension of the sexuality. At first, her 'Women's Liberation Movement' was based on the rationality of Enlightenment. She prescribed the vice of society at that time as the problem of patriarchy, and presented the feminist vision as substitute. She tried to pursue the way to solve women's problem in social dimension. In early days, her 'Women's Liberation Movement' showed the side face of social movement. But immediately, it confronted with a problem of woman's body as sexual

liberation. It means that the chastity is important. By her 'Argument about new chastity', she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women's sexuality as its returning to the psychological dimension. It is 'the Pursuit for the romantic love' which intends to posit the basis of the women's being upon man as the Other. That intention ultimately came to distort the relations between woman's sexuality and the modern subjectivity. After this, she tried to settle this conflict by means of the doctrine of Buddhism. But this efforts could not show a practical phase and came to personal salvation as a result. She failed to show the practice in the Women's Liberation because of her addiction to romantic love.

